

## 조선봉건왕조시기 금속화폐류통과 그 영향

리 선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평통보〉가 전국적범위에서 류통되게 된것은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로서 이것은 사회경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249페이지)

화폐는 상품생산과 교환이 발전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다.

화폐는 그 발생초기에 짐짐승이나 짐승가죽, 쌀과 같은 현물화폐로 류통되어오다가 점차 상품류통이 발전함에 따라 현물화폐와 함께 금속화폐도 널리 류통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금속화폐류통의 력사는 고대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고대시기에 사회적분업이 발전하고 상업이 출현하면서부터 청동이나 철과 같은 금속들이 류통되었고 봉건사회전반기에 상품교환이 활발히 전개되는데 맞게 현물화폐와 함께 주화, 구리돈이 류통되었다. 특히 고려시기 상품생산이 장성하고 상품류통이 확대되는데 따라 봉건통치배들사이에만 류통되었던 은주화가 점차 일반사람들사이에 류통되었다.

그러나 17세기이전까지 우리 나라에서 류통되어오던 이러한 금속화폐들은 매 시기마다 오래 류통되지 못하고 중단되곤 하였다. 그것은 상품교환에서 현물화폐의 류통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한것과 관련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금속화폐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점차 현물화폐를 구축하면서 17세기 이후에 통일적인 금속화폐로 발전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중단없이 류통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1633년에 처음으로 주조되어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류통된 지배적인 금속화폐였던 《상평통보》였다.

금속화폐의 전국적인 류통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금속화폐의 주조와 류통문제는 임진조국전쟁이후에 나라의 재정난과 관련하여 크게 제기되었다. 1603년 호조에서는 나라의 재정과 개인들의 생활이 궁핍한 원인의 하나가 쌀이나 포화와 같은 현물화폐를 쓰는데 있다고 하면서 설사 평시라고 하여도 재물을 늘일 방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재정이 바닥이 드러난 때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하면서 새로운 화폐류통을 적극 주장해나섰다. (《선조실록》 권162 36년 5월 무인 갑신)

이에 따라 같은해 6월 2품이상 고위관리들이 모여 새로운 화폐류통문제에 대하여 토의하게 되었으나 화폐원료인 동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결국은 보류되고말았다.

그후 17세기 20년대에 와서 화폐류통문제는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1625년 화폐를 주조하여 전국적으로 류통시킬데 대한 호조판서 김신국의 제의가 채택되어 동전주조에 착수하였으나 (《인조실록》 권10 3년 10월 임인) 기술적숙련이 부족하여 다음해 6월현재 동전 (《동국통보》와 《십전통보》)은 600관(1관은 10량)밖에 주조하

지 못하였으며 그나마도 다음해에 일어난 후금침략으로 중단되고말았다.((인조실록》권28 11년 10월 갑술)

1633년에 호조판서 김기종의 제의에 의하여 또다시 화폐주조가 진행되고(《증보문헌비고》권159 채용고 6 전화) 그것을 류통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도 취해졌으나 1636년의 청나라침입으로 중단되고말았다. 이때의 동전주조 및 류통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주전을 중앙에서뿐만아니라 안동과 대구, 해주, 수원, 개성 등 지방에서도 진행하게 한것이며 부세의 금납화를 피하는 등 보다 광범하고 적극적인 류통정책을 실시한것이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상평통보》는 평안도와 개성 그리고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널리 류통되지 못하였다.

두차례에 걸친 반청침략전쟁을 계기로 한때 중단되였던 화폐류통문제는 17세기 40년대부터 다시 제기되였다.

일찌기 개성류수로 있으면서 그곳 주민들속에서 동전이 널리 류통되고있었는데서 고무를 받은 김육은 1644년 화폐류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류통을 적극 다그칠것을 주장하여나섰다.((인조실록》권45 22년 9월 병술)그후 중추부령사로 된 김육은 1650년에 진위사로 중국에 갔다가 값이 낮은 청전(청나라돈) 15만문을 사가지고 의주로 돌아와 그 동돈을 평양과 안주 등지에 나누어주어 시험삼아 통용시킬것을 청하였다.((효종실록》권4 1년 6월 정미)

그후 봉건정부에서는 돈을 중국에서 계속 바꾸어오는것이 곤란한것으로 하여 자체로 주조하기로 하고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먼저 동전을 류통시키며 개인들의 동전주조를 허락하기로 하였다.((효종실록》권6 2년 5월 기축) 그리고 1654년경에는 조세의 일부를 돈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조치도 강구하였다.((효종실록》권12 5년 4월 무진)

이 과정에 평안도, 황해도의 여러 지역들에서 화폐가 류통되어갔으며 특히 1670년경에 이르러 개성과 린접지역들에서는 동전이 보다 널리 류통되였다.

이러한 토대에 기초하여 동전주조와 류통은 17세기 70년대에 와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1678년 1월 봉건정부는 금속화폐를 전국적으로 류통시키기로 결정하고 호조, 상평청, 진휼청, 어영청, 사복시, 훈련도감 등에서 《상평통보》를 일시에 주조하여 동전(엽전) 400문을 은 1량의 비율로 시장에서 류통시키기로 하였다.((숙종실록》권7 4년 1월 을미)

이렇게 되어 17세기 후반기 《상평통보》의 전국적인 류통은 마침내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친 쌀, 무명, 베 등 현물화폐의 지배를 물리치고 금속화폐가 지배적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았다.

17세기에 금속화폐가 확고한 토대우에서 류통되기 시작하여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게 된것은 이 시기 상품화폐류통령역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시 사회경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금속화폐류통은 무엇보다먼저 봉건국가로 하여금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착취사회에서 화폐는 언제나 착취계급의 리익에 복무하여왔다.

이 시기 금속화폐도 역시 착취자들이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였다.

17세기에 봉건통치자들은 금속화폐를 유통시키는 목적에 대하여 《돈을 유통시키려는 본뜻은 재정을 넉넉히 하고 백성들의 편리》를 위한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화폐유통을 기도한 진정한 목적은 화폐유통공간을 통하여 인민들을 수탈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봉건국가의 재정을 메꾸기 위한것이였으며 《백성들의 편리》를 위한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선 봉건국가는 주조화폐로서의 구리돈의 명목적가치와 원료의 가치와의 차이를 현저하게 함으로써 화폐주조과정에서 막대한 리운을 얻어냈다. 다시말하여 봉건정부는 한량의 구리돈을 주조하는데 소모된 원료의 값과 로력비 등 생산비가 불과 몇푼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명목적가치를 높임으로써 막대한 리운을 얻어냈다.

1634년에 호조에서 화폐유통에 관하여 만든 규정인 《용전사목》에 의하면 동 1근으로 주조한 돈값은 무명 1필에 해당하였는데 무명 1필이면 적어도 동 5근을 살수 있었다.((《승정원일기》 인조 13년 9월 15일)

그러므로 비록 돈을 주조하는 로력과 기타 비용을 타산한다 하여도 봉건국가로서는 화폐주조를 통하여 많은 리득을 얻을수 있었다. 화폐주조를 통하여 봉건국가가 얻은 리득은 1679년 당시에든 거의 같았다.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동 7근이면 돈 1관을 주조할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동 7근 값은 1량 4돈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1관의 명목적가치는 5량이나 되었다. 따라서 관청에서는 화폐주조과정을 통하여서도 폭리를 얻었던것이다.((《비변사등록》 숙종 5년 2월 19일)

이 시기 봉건정부는 각 관청들의 재정부족을 해결할 목적으로 특별히 주전을 승인하였으며 구리돈유통량이 적어졌을 때 개인들에 의한 주전도 승인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화폐주조과정에서 얻어지는 폭리를 노린것이였다.

또한 이 시기 금속화폐의 유통은 조세수탈령역에까지 영향을 주어 봉건국가는 이러저러한 국가적수탈을 화폐로 받아내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예산수입구성에서 금속화폐의 비중을 현저히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근대적재정체제수립을 위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1634년에 조선봉건국가는 중앙 각 관청노비들의 《몸값》을 돈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며 대동미의 10분의 1을 돈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후 1679년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들에서 대동미의 일부를 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1699년에 좌의정 서문중이 보고한데 의하면 17세기 90년대에는 노비들의 《몸값》과 대동미 등을 돈과 무명으로 각각 절반씩 걷어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비변사등록》 숙종 25년 10월 6일)

이렇게 17세기 90년대부터 봉건정부에서 대동미와 노비《몸값》 등 국가수탈의 적지 않은 부분을 화폐로 받아들이는 금납화과정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정부는 금속화폐의 유통공간을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금속화폐유통은 다음으로 자급자족적인 자연경제를 분해시키고 자본주의적경제관계발생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지어주었으며 사회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을 상품화폐관계의 소용돌이속에 깊이 끌어들이는데도 영향을 주었다.

우선 17세기이후 금속화폐유통의 발전은 봉건사회의 경제적기초를 이루고있던 자연

경제를 분해시키고 자본주의적경제관계의 발생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을 조성하였다.

17세기이후 우리 나라에서 금속화폐류통과 함께 급속히 발전한 상품화폐관계는 농촌에도 깊이 침투함으로써 토지의 상품화와 상업적농업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토지의 상품화는 토지가 상품으로 매매되는 현상이다.

토지매매현상은 이미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 17세기이전에도 나타났지만 그때의 토지매매는 봉건적신분관계의 연속을 동반하고있었으며 경제외적강제에 의하여 매매쌍방은 서로 교환에서 평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7세기이전의 토지매매는 토지의 상품화를 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이때의 토지매매는 그 실현수단이 적지 않게 현물화폐였다. 그러나 17세기 특히 18세기이후의 토지매매는 토지소유자와 화폐소유자사이에 봉건적인 신분적 불평등에서 상당히 벗어난 교환관계로 진행되었으며 이때의 토지매매는 화폐를 통하여 등가교환의 원칙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17세기 후반기 농업생산이 장성하고 판매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생산물의 많은 부분이 시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농민들의 화폐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농업부문내부에서 분업이 확대되어 전문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봉건국가가 조세를 돈으로 받아내는 비중을 높임에 따라 화폐가 많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을 자극하였다. 농민들속에서는 화폐를 얻으려는데로부터 상품화률이 높은 농산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데로 나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잘 판매되는 품종의 생산비중을 높이다가 점차 여러가지 농산물을 재배하기보다 전문화하는것이 유리하게 되었을 때 자기 경리전체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으로 전환시켰다. 이리하여 상업적농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17세기이후 금속화폐류통의 발전은 사회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을 상품화폐관계의 소용돌이속에 깊이 끌어들였다. 화폐류통을 계기로 지배계급내부에서는 사치와 낭비현상, 치부욕이 조장되어 양반, 지주들은 고리대착취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농민들은 곡식이 채 여물기도 전에 그것을 혈값으로 고리대의 대가로 넘겨줌으로써 더욱더 멸락되어갔다. 이렇게 화폐류통영역은 농촌에까지 확장됨으로써 농민들을 멸락시키는 반면에 부유한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양극분해작용을 하고있었다.

이처럼 금속화폐류통의 발전은 봉건적인 경제관계를 분해시키고 자본주의적경제관계의 발생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금속화폐류통은 다음으로 막대한 화폐재산을 축적한 새로운 사상인들의 출현과 한편으로는 류량민들의 대량적인 출현을 산생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우선 17세기이후 상품류통이 장성하고 금속화폐가 전국적규모에서 류통되면서 상당히 많은 량의 화폐재산을 축적한 사상인들이 출현하였다.

이 시기 사상인들가운데는 수만량 지어 그 이상의 화폐를 모은자들이 있었다. 폐컨대 동래의 어떤 상인은 17세기에 은화 7만량을 가지고있었고 의주상인 림상옥은 인삼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재산을 모았으며 한성의 오한주는 낫쇠를 도매하여 많은 화폐재산을 모았다.

큰 사상인들은 저들끼리 도가(도매상)를 못고 상품들을 독차지하여 값으로써 많은 리득을 보는 한편 시전인들을 크게 위협하였다.

도가의 란전행위로 하여 시전인들은 점차 저들의 특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일부 중소 시전인들은 도가의 소매업자로까지 전락되었다.

사상인들가운데서 경강상인들의 활동이 제일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도매, 소매를 포함한 상업활동은 물론 운수업, 고리대금업, 조선업 등을 벌렸으며 지어 봉건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조세미를 운반하거나 공물대납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 시기 새로 출현한 사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봉건적어용상업인 시전제도가 점차 무너지고 나라의 사회경제생활에 대한 사상인들의 지배력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17세기이후 금속화폐류통과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으로 봉건적신분제도가 심히 약화되면서 농촌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계급분화과정에 류랑민이 대량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계급분화과정에 유리한 생산조건을 가진 극소수의 농민들은 부유해졌으나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봉건국가, 지주, 고리대금업자, 상인들에 의한 2중3중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멸락파산되었다.

멸락파산된 농민들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류랑의 길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류랑민대렬은 18세기이후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늘어났다. 그리하여 류랑민의 대량적출현은 이 시기 하나의 사회적현상으로 되었다. 류랑민은 토지없는 농촌의 무산자였다. 그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로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류랑민의 적지 않은 수는 당시 화폐자본을 축적한자들이 경영하는 광산과 전업적수공업장에 진출하여 고용로동자로 되었다. 류랑민의 일부는 도시와 농촌의 품팔이군으로 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수공업, 어업, 림업, 상업, 운수 등 여러 분야에 고용되어 품팔이를 하였다. 이것은 봉건제도안에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17세기이후 금속화폐의 전국적류통과 더불어 이루어진 큰 사상인들의 수중어로의 막대한 화폐재산의 축적과 대량적인 류랑민들의 출현은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발생의 중요한 전제로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시기 전국적범위에서 이루어진 통일적인 금속화폐의 류통은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에서 일어난 가장 큰 하나의 변화였으며 그것은 사회경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부터 경제가 발전하였으며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자본주의적경제관계가 발생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금속화폐류통의 발생발전의 력사적과정과 그것이 해당 사회경제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잘 알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고 조선경제발전력사를 주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분석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